



지난해 11월 1일 광주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학생독립운동 80주년 기념 시민건강걷기대회. 200여 시민들이 참가해 여성발전센터~광주서부경찰서~우미아파트~김대중센터~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도는 3km 구간을 활기차게 걸었다.

평화통일 새기며 가을을 걷는다

학생독립운동 81주년 기념 시민건강걷기대회

7일 상무시민공원 일대서… 참가자들에 기념품

학생독립운동의 승고한 민족·독립 정신을 되새기는 광주시민들의 훈찬 행진이 펼쳐진다. 학생독립운동 81주년 기념 시민건강걷기대회가 7일 오전 광주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다.

CNN21방송과 행복나눔실천연대가 주최하고 광주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학생독립운동연구단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

에는 광주시민, 학생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독립운동의 세계정신과 평화통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훈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오색단풍이 하늘을 수놓는 늦가을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학생독립운동 정신 계승의 의미는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 운동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전남대, 광주동부교육청, 31사단, (사)사설련, 시민사회단체총연합, (주)진흥건설, (주)OB맥주 등 지역기업 및 학생, 군인, 시민단체 등 단체팀들이 참가해 화합을 다지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무시민 공원 일원의 3km를 걷게 되는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하며, 앞서 10시부터는 개회식이 진행된다. 걷기 참가자들은 상무시민공원을 출발해 치평초등학교~김대중컨벤션센터~성민세이프~상무조각공원~해광한신아파트를 거쳐 다시 상무시민공원으로 돌아오게 된다.

풍물놀이, 군악대, 벨리댄스, 에어로빅 등 다양한 식전행사와 함께 맥주 무료시음, 미용비누 증정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전문 레크리에이션 강사의 걷기요령 및 생활체조 강좌도 열린다.

오기만 CNN21방송 회장은 “망국의 수난을 딛고 아시아 평화와 공영의 미래를 노래한 아름다운 독립운동과 평화통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늦가을 펼쳐지는 시민들의 축제에 광주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말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자 전원에게 고급 기념품이 증정 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아시안게임 D-8

실전 감각 찾는 야구대표

양현종 완벽투·김현수 훌런포…롯데 2군에 8대1 승

광자우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팀의 간판 타자 김현수(22·두산)가 연습경기에서 홈런을 쏘아 올리는 등 쾌조의 커디션을 보였다.

김현수는 3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펼쳐진 프로야구 롯데와 연습경기에서 2점 홈런을 포함해 3타수 3안타의 맹타를 휘둘러 8-1 승리를 이끌었다.

김현수는 6-1로 앞선 5회 1사 1루에서 상대 투수 송보람을 맞아 우중간으로 넘어가는 홈런을 뽑아냈다.

김현수는 앞선 2회에 선두타자로 나와 좌전 안타를 치고 득점을 올렸고, 4회에도 무사 2루에서 중전안타를 치고 나간 뒤 홈을 밟았다.

6회까지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는 양현종(KIA)과 임태훈(두산)이 차례로 마운드에 올라 구위를 점검했다. 양현종은 3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잘 던졌고 임태훈은 2이닝 동안 2안타를 맞으며 1점을 내줬다.

대표팀의 봉중근(LG)과 정대현(SK)은 롯데 소속으로 뛰면서 커디션을 끌어올렸다.

경기에서는 대표팀이 2회 김현수와 강민호의 안타로 만든 무사 2, 3루에서 내야 땅볼

2개로 2점을 먼저 뽑았다. 4회에는 이대호(롯데)·김현수·강민호(롯데)·강정호(넥센)의 연속 4안타 등으로 4점을 보탰다.

1일 KIA와 연습경기에서 홈런 등 3타수 2안타를 친 강민호가 이날 3타수 2안타로 좋은 타격 감각을 이어갔다. 또 1일 경기에서 홈런을 날렸던 강정호도 3타수 2안타를 치면서 팀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반면 KIA와 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에 그친 추신수(클리블랜드)는 이날도 2타수 무안타에 머문 끝에 4회 김강민으로 교체됐다.

대표팀은 5일 KIA, 7일 롯데와 또 연습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유럽 무대 '兩朴' 날다

■ 맨유 박·지·성

챔피언스리그 첫 도움



박지성(29)이 교체 투입돼 추가골을 도와 주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완승에 힘을 보탰다.

박지성은 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터키 부르사의 부르사 아티튀르크 경기장에서 치른 부르사스포르와 2010-2011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C조 4차전 원정경기에서 전반 28분 교체 투입돼 1-0으로 앞선 후반 28분 가브리엘 오베르탕의 추가 골을 드는 등ะ 몸을 해냈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박지성은 4경기(3경기 선발) 모두 출전했고, 공격포인트는 처음이다.

박지성의 올 시즌 공격포인트는 리그컵 대회인 칼링컵(2골 2도움)을 포함해 2골 3도움으로 늘었다.

맨유는 3-0로 부르사스포르를 완파하고 3승 1무(승점 10)가 돼 조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박지성은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나니가 불의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몸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전반 28분 경기에 나

섰다. 박지성이 왼쪽 측면을 맡았고, 오베르탕이 오른쪽으로 옮겨 갔다.

박지성은 후반 18분 플레처가 나가고 베베가 들어온 뒤로는 중앙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더니 결국 공격포인트까지 올렸다.

후반 28분 미드필드 중앙에서 아크 왼쪽에 있던 오베르탕에게 패스를 내줬고, 오베르탕이 공을 잡아 중앙으로 툭툭 치고 들어가 오른발슛으로 골문을 열었다. 박지성의 도움으로 오베르탕은 챔피언스리그 데뷔골 맞을 봤다.

/연합뉴스

■ AS모나코 박·주·영

51일만에 시즌 2호골



프랑스 프로축구 무대에서 뛰는 박주영(25·AS모나코)이 51일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하면서 시즌 2호골 맛을 봤다.

박주영은 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모나코 루이2세 경기장에서 열린 지롱댕 보르도와 2010-2011 시즌 프랑스 정규리그(리그1) 1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1로 끌려가던 후반 4분 동점골을 넣었다.

박주영으로서는 지난 9월13일 올랭피크 마르세유와 5리운드 원정경기(2-2 무승부)에서 시즌 첫 골을 터트린 뒤로 51일 만이자 정규리그 6경기와 리그컵 대회 2경기를 포함해 8경기 만에 다시 가능한 득점포다.

모나코는 경기 시작 10분 만에 수비수 지미 트리아노의 자책골로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갔다.

박주영은 전반 17분 균형을 되찾아 이를 좋은 기회를 놓쳤다. 골 지역 정면을 파고들어 원발로 찬 공이 골문을 살짝 빗나갔다.

전반을 0-1로 뒤진 채 마침 모나코는 후반

4분 만에 박주영의 한 방으로 결국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마티유 쿠타퇴의 크로스에 이은 듀메르시 음보카니의 헤딩슛 때 공이 크로스바를 맞고 골문 앞에 서 있던 박주영 앞으로 떨어졌고, 박주영은 강력한 오른발 발리슛으로 골망을 훔들었다.

기세가 오른 모나코는 후반 20분 쿠타퇴의 프리킥 골로 전세를 뒤집었다. 하지만 모나코는 후반 28분 보르도의 주시에에게 동점골을 내줘 결국 2-2로 비겼다.

/연합뉴스

Angelo

안젤로는 이태리어로 천사입니다.

이태리가구 전문점 100% MADE IN ITALY

안젤로 오픈기념 20% OFF 11월 30일 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307-1 화정동사거리 구, 푸조전시장
062-382-0022, 381-3388

옥상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케이스공
2. 단열베이스케이스 / 트라이슈미트시공
3. 트라이슈미 텁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특허방수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미® 단열시트방수

2중단열 방수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턱월 + 전천후 시공성

1. 여름철에는 전기로 절감 30~40%
2.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 15~20%
3. 옥상정원을 조성했을 때와 같은 단열효과를 냅니다.

태양열차단 방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로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본사 전속모델 텔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 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